

연예뉴스 스테이션

주원, 의무경찰 선발시험 합격



연기자 주원(사진)이 서울경찰 홍보단에서 군복무를 할 전망이다. 16일 주원 소속사 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주원은 최근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해 합격해, 서울경찰홍보단에 입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원 측은 16일 “합격 통지를 받은 건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대 날짜를 받은 것은 아니다.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며 이달 안으로 작품을 선택할 예정이다. 이 작품을 끝낸 뒤 입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우 류수영 이제훈 김동욱 최효종 등이 서울경찰홍보단(구 호루라기 연극단)에서 복무한 바 있다.

이승기, 특수전사령부로 자대배치



2월1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가수 겸 연기자 이승기(사진)가 특수전사령부로 자대배치를 받았다. 이승기는 1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퇴소한 후 특수전사령부에 배치됐다. 이승기는 훈련기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는 입대를 앞두고 ‘나 군대 간다’와 ‘그런 사람’을 차례로 발표해 사랑을 받았다. 이승기는 2017년 10월31일 전역한다.

문화준 콘서트에 이재원 특별게스트 참여

H.O.T 출신 문화준과 이재원이 함께 무대에 선다. 공연기획사 쇼플러스는 25~27일 서울 서교동 롯데카드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문화준 투웬티스 애니버서리 콘서트-에피소드’ 특별게스트로 이재원이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3월 이재원의 제대를 기념하는 자리 이후 이들이 공식석상에 함께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문화준 콘서트에 토니안이 게스트로 참여했고, 1월 열린 ‘문화준 투웬티스 애니버서리 콘서트-에피소드1’에서는 강타와 15년 만에 한 무대에 올랐다.

엑소, 오리콘 주간차트 3개 부문 1위

그들 엑소가 오리콘 주간차트 3개 부문을 휩쓸며, 일본에서 또 한번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엑소는 일본에서 9일 DVD와 블루레이로 발매된 ‘엑소 플레닛#2-더 엑소루션 인 저팬’으로 오리콘 DVD 종합차트 및 블루레이 종합차트 1위를 차지했다. DVD와 블루레이 판매량을 합산한 종합 뮤직영상차트에서도 1위에 올라, 오리콘 주간차트 3관왕을 기록했다. 특히, 엑소가 오리콘 주간 블루레이 종합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작년 3월 출시된 ‘엑소 스프링 엑소플레닛 #1-더 로스트 플래닛 인 저팬’에 이어 통산 2번째 기록이다. 이는 해외 남성 아티스트 사상 처음이자 소녀시대가 세운 역대 해외 아티스트 최다 1위 기록과 같다.

김가연·임요환 결혼식에 유재석 사회 맡아

2011년 혼인신고를 하고 지난해 8월 딸을 낳은 연기자 김가연(44)과 프로게이머 임요환(36)이 뒤늦게 결혼식을 올린다. 16일 김가연의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5월8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방송 파인애플TV는 두 사람의 웨딩화보를 공개하며 예식 계획을 전했다. 결혼식 사회는 김가연의 절친인 방송인 유재석이 맡는다.

정용화, 영화 ‘퐁미강호-결전식신’ 주연 캐스팅

남성밴드 씨엔블루 정용화가 중국어권 대작으로 꼽히는 영화 ‘퐁미강호-결전식신’에 출연한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6일 “정용화가 홍콩 엔터테인먼트사 영화영화가 456억원을 투자해 제작하는 영화에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다음 달 촬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각본과 제작 지휘를 맡은 문준 프로듀서는 “정용화가 속한 씨엔블루가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가 많다. 정용화는 연기도 잘하는 배우”라고 말했다. 정용화는 ‘중국의 김희선’으로 불리는 바이빙과 호흡을 맞춘다.

책 랭킹

3월 2일~3월 8일, 자료:교보문고

순위	제목	작가
1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헤인	
2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미치로
3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채사장
5	원피스, 80	오다 에이치로
6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7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8	미라클모닝	할 엘로드
9	오리지널스	애덤 그린트
10	법륜 스님의 행복	법륜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이규창 키노33 대표와 4월11일 웨딩예비신랑은 외모도 마음도 남자다워 일로 인한 어려움 위로하며 결혼약속

“제가 결혼한다니, 신기하네요. 하하.” 다음달 결혼하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리사(정희선·36·사진)는 축하인사를 건네자 “고맙다”면서 어느새 자신이 결혼할 나이에 이르렀다며 웃었다. 리사는 이규창(38) 키노33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4월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16일 전화로 만난 리사는 “평소 이상형으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다운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다. 리사는 이규창 대표와 2010년 무렵부터 “그냥 알고 있던 사이”였다가, 2014년 연말쯤 우연히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이 결혼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다.

최명길·심은하·김경란·윤세인 ‘총선 내조’

남편·아버지, 4·13 국회의원선거 출마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바쁜 연예인들이 있다. 정치인 남편을 둔 배우 아내와 부모의 출마로 주목받는 2세 연예인 등 ‘정치인 가족들’이다.

배우 최명길과 KBS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 김경란은 최근 남편의 지역구 공천이 확정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은퇴한 여배우 심은하 역시 남편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내조’를 펼칠지 시선을 끈다.

최명길은 오랫동안 정치인의 아내로 제 몫을 해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더욱 적극적이다. 남편인 김한길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서울 광진갑 출마에 따라, 선거 유세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최명길은 선거 때마다 ‘내조의 여왕’다운 면모를 보여 왔다. 2001년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구로읍에서 출마한 남편을 위해 출산 보름 만에 유세에 참여한 일화는 유명하다. 최명길은 현재 KBS 1TV 드라마 ‘우리 집 끝단지’ 촬영에 한창이지만, 일정이 없는 날에는 어김없이 남편과 지역구의 재래시장 등을 찾고 있다.

지난해 1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결혼한 김경란 전 아나운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인 아내로 유권자들 앞에 처음 나선다. 김 의원의 경기 수원을 공천에 따라 김경란의 행보까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총선 유세를 통해 배우 심은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남편인 지상욱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중구성동을 경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2001년 연예계 은퇴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심은하는 남편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가끔 카메라 앞에 서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난



▲최명길-김한길 부부



▲심은하-지상욱 부부

해 말 이들 부부는 한복 사진을 동봉한 연하장을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지상욱 후보의 활동을 알리는 온라인 블로그에서는 정치인 아내로 활동하는 심은하의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정치인 자녀 가운데 선거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연예인은 윤세인이다. 드라마 ‘폼 나게 살거야’ ‘아들 녀석들’에 출연한 윤세인은 아버지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4년 대구시장 출마 당시 지원 유세에 나서 이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대구 수성갑 후보로 이번 총선에 나섰다. 지난해 3월 결혼한 윤세인은 얼마 전 출산해 현재 산후조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거리 유세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2010년엔 그냥 알던 사이… 2014년부터 사랑 키웠어요”

- ‘4월의 신부’ 리사

리사는 “처음엔 그를 일 때문에 본 사람이어서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다. ‘배우 자로서는 아니다’는 처음 생각이, 차츰 ‘나와 맞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이란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리사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폴란드와 독일, 스웨덴 등 유럽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규창 대표는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교포로, 미국 워싱턴대학을 졸업했다. 두 사람은 식성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부터 가치관, 사고방식까지 여러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았고, 종교도 같은 점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됐다. 특별히 두 사람이 작년 한 해 나란히 각자의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의 위로로 극복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다.

리사는 “그가 멋지다고 생각한건,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정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배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이 날 편안하게 해줬고, 나의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에)확신을 얻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믿음직하고 남

자답다. 외모도 남자답지만, 마음이 남자답다. 내가 늘 생각하는 ‘멋있는 남자’에 일치한다.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더라”고 말했다.

리사는 2003년 ‘사랑하긴 했었나요’로 데뷔해 ‘헤어제야 사랑을 알죠’ ‘투나잇’ 등의 히트곡을 냈다. 2008년엔 ‘밴디트’ 출연을 시작으로 뮤지컬계로 진출해 ‘헤드워’ ‘지킬앤하이드’ ‘투란도트’ 등 수많은 대작에 출연하며 정상의 디바로 인정받았다. 이규창 대표는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화제를 모을 당시 그를 미국에 소개한 인물로 유명해졌다. 최근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할리우드 스타 리암 니슨을 캐스팅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한국과 미국의 연예산업의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리사와 이규창 대표는 제한된 인원만 초대해 외부인에게는 비공개로 예식을 올릴 예정이다. 두 사람이 함께 출석중인 서울 동부이촌동 은누리교회 정재림 목사가 주례를 맡는다. 사회나 축가, 신혼여행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신집살림은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에 마련한다.

김원경 기자 gummy@donga.com

이재용·정지우·임순례 감독 ‘또 한번의 도전’

영화 ‘죽여주는 여자’ 저예산 3D 제작 1등 지상주의 비판 ‘4등’ 순제작비 6억

작은 규모의 영화에 강렬한 메시지를 담아낸 감독들의 과감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용 정지우 임순례 등 실력을 인정받아온 연출자들이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상업영화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한 번쯤 주목해야 할 소재, 이를 넘어서는 장르의 변주가 시도되면서 시선을 끌고 있다.

단연 주목받는 영화는 이재용 감독이 연출한 ‘죽여주는 여자’다. 몸을 팔아 삶을 잇는 한 늙은 여인의 이야기다. 앞서 ‘두근두근 내 인생’ ‘여배우들’에서 유명 배우를 내세워 상업적 성취를 거둔 이 감독은 이번엔 순제작비 12억 원으로 몸집을 줄였다. 그러면서 3D버전 제작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근래 한국영화에서 찾기 어려운 과감한 시도다.

‘죽여주는 여자’는 2월 열린 제6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진출해 일찌감치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1일 개막하는 제40회 홍콩국제영화제에도 초청받았다.

주연배우 윤여정은 ‘여배우들’에 이어 이재용 감독과 다시 만나 ‘모험’과도 같은 연기에 몸을 사리지 않았다. 영화계에서는 벌써 윤여정이 보여줄 파격적인 연기에 대한 기대가 모였고, 고무적인 입소문도 나오고 있다.

‘은교’ 정지우 감독의 선택도 주목할 만 하다. 4월 개봉하는 ‘4등’은 순제작비 6억원으로 완성한 영화, 주인공 수영선수를 통해 1등 지상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수영에 재능이 있지만 출전하는 대회마다 4등에 그치는 주인공과 1등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엄마의 관계를 비추면서 질문을 던지는 이



▲영화 ‘죽여주는 여자’



▲영화 ‘4등’

야기다.

정지우 감독은 앞서 ‘은교’를 통해 신인배우 김고은을 발굴했고, 동시에 노년의 욕망을 극적으로 풀어내 실력을 증명하는 연출자다. 새로 내놓는 ‘4등’은 ‘은교’는 물론 앞서 연출했던 ‘해피엔드’ 등과 분위기가 전혀 다른 작품이지만, 정 감독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임순례 감독은 제작자로 나섰다. 류준열과 지수 주연으로 24일 개봉하는 ‘글로리아’다. 이미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을 통해 남자들의 이야기를 펼쳤던 임 감독은 이번에는 신인인 최정렬 감독과 연기자들의 도전을 물심양면 도왔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금·토요일 밤을 점령하라” KBS 2TV 예능 전략편성

밤11시 ‘언니들의…’ ‘배틀트랩’ 방송

KBS가 금·토요일 밤 11시대에 사활을 걸었다.

봄 개편을 맞아 KBS 2TV는 4월의 금·토요일 밤 11시에 각각 새 예능프로그램 ‘언니들의 슬램덩크’와 ‘배틀트랩’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포맷이나 출연자 면면을 보면 주말저녁 시간대와 어울리지만, 이 시간

대에 새 프로그램을 편성한 데에는 나름의 전략이 있다.

케이블채널 tvN이 드라마 ‘응답하라 1988’과 ‘시그널’ 등을 금·토요일에 편성해 지상파를 위협하는 성과를 낸 것을 그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tvN의 파격적인 전략에 허를 찔렸지만, KBS로서는 tvN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금·토요일 밤에도 충분히 시청자를 끌어들이 수 있다’는 생각

을 하게 됐다. 아직 지상파 3사가 금·토요일 밤 11시대 예능프로그램으로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점도 KBS가 더욱 사활을 거는 이유다.

MBC는 금요일에 ‘나 혼자 산다’, 토요일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방송한다. SBS는 금요일에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편성했다. 아직 절대적인 강자가 없어, KBS로선 새 프로그램이 화제를 모으기 시작한다면, 해당

시간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티파니 라미란 홍진경 민효린 등이 연예인으로서 하지 못했던 소소한 꿈들을 이루는 내용이다. ‘배틀트랩’은 성시경, 이휘재 등이 여행지에서 자신만의 여행법을 소개하는 포맷이다.

KBS 예능국 관계자는 16일 “최근 금요일 드라마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 시청자를 그대로 예능으로 이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방송 요일과 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다”고 자신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